

‘숙박세일페스타’, 전남 숙박 최대 5만원 할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 확대해 타 지역보다 2만원 더 혜택

전라남도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0일부터 진행하는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에 전남이 타 지역보다 더 큰 숙박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접제한 전남 관광 회복을 위해 전남도가 지난 6월부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재난 지역 확대를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에서 일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숙박 요금이 7만 원 이상

이면 3만 원, 그 미만은 2만 원이 할인되지만, 전남은 각각 5만 원과 3만 원으로 할인 폭이 확대된다.

할인권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 여행사 40개 채널을 통해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발급 당일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위축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전남

전역에 혜택이 적용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가을 국제수목비엔날레,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전남에서 특별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ktostay.visitkorea.or.kr)이나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선호 기자



남구, 하반기 통일열차 '이번에는 금강산'

강원도 정동진·고성행 1박 2일 신규 노선 마련

4인 1조 45팀·180명 모집... 10월 14~15일 출발

“오는 10월 하반기 통일열차는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만나러 갑니다. 탑승을 희망하는 분들은 4인 1조로 미리 팀을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구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확대와 분단 현실을 체감하는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해 하반기 통일열차 신규 운행 노선으로 강원도 고성 일대를 둘러보는 코스를 추가했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하반기 통일열차 운행 노선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금강산 일대를 둘러보는 강원도 고성 지역 비무장 지대와 오는 11월 4일에 출발하는 경기도 파주 지역 비무장 지대 2개 코스가

같은 방식으로 최북단 도라산역에서 내린 뒤 버스를 타고 파주 지역 비무장 지대를 둘러본 뒤 당일 광주로 향하게 된다.

코스별 탑승 인원은 강원도 고성행 통일열차는 180명이며, 경기도 파주행 통일열차는 200명을 모집한다.

하반기 통일열차 참가자 모집은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로 각각 진행하며, 다만 금강산 일대를 관람하는 고성행 통일열차의 경우 반드시 4인 1조로만 신청을 받는다.

먼저 현장 접수는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3일간 이뤄진다.

현장 접수 모집인원은 강원도 고성행 72명(18팀)이며, 경기도 파주행은 80명이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9월 10일 오전 9시부터 남구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코스별로 108명(27팀)과 12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하반기 통일열차 온라인 접수 배너는 다음 달에 공개될 예정이다.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광주에서 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상생카드’를 지급한다.

이번 지원정책은 아이의 탄생을 시민 모두가 축하하고 응원하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시의 울헤 신규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광주에서 출생한 아이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결과, 첫째아는 출생(0세) 때부

광주시, 출생가정에 ‘축하 상생카드’ 50만원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

터, 둘째아 이상은 1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 등 출생신고 신청권자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20일부부터 주소지 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출생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은 물론 저출생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정부의 출산 지원금 ‘첫만남이용권’(출생아당 200만원, 둘째아부터 300만원)도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이의 탄생은 한 가정의 기쁨이자 광주의 미래”라며 “시민과 함께 출생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확산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광훈 기자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 주민발안 조례 제정 청구... 총 8,163명 서명

주민자치회·주민자치센터·마을만들기 관련 기존 조례 통합... 지속가능한 마을자치 실현 목표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실효성 있는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마을자치 기본 조례」 제정을 주민발안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화하고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북구에서 추진 중인 주민발안 조

례는 「마을자치 기본 조례」로 주민 스스로 마을자치 기반을 제도화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 청구는 북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민기욱)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지난 8월 18세 이상 주민 8,163명의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를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주민발안을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인 청구인 5,203명(북구 청구권자 전체

의 70분의 1)을 웃도는 것으로 이번 조례 발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구된 「마을자치 기본 조례」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조례를 통합·정비해 북구형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 청구에 따라 북구 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의의신청 및 보정 기간을 거친 뒤 결정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발안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주민발안 조례 제정 청구는 주민이 주인인 북구를 실현하고 주민 권권 증진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구정 전반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여성 1인 가구 등 주거 안전 취약계층의 범죄 예방에 나선다. 서구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호신·방범용품으로 구성된 ‘안심키트’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와이파이(Wi-Fi) 미설치 등 설치 환경 제약으로 집 앞 CCTV 설치 제약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고자 기획됐으며 안심키트는 ▲LED 안전 호루라기 ▲호신용 스프레이 ▲택배 송장 지우개 ▲창문 잠금장치 2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서구, 여성 주거 안전 ‘안심키트’ 지원

잠금장치 등 호신·방범용품 6종 배부... 9월 4일까지 모집

▲미니 소화기 등 6종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족, 범죄 피해 여성 등으로 총 50가구를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9월 4일까지이며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양성아동복지과(062-360-7645) 또

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evok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서구는 올해 1월 여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비상벨·긴급출동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여성 1인 가구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강미숙 양성아동복지과장은 “안심키트

가 여성 1인 가구 등 주거 안전 취약계층의 불안감을 덜고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망을 확충해 모두가 안심하고 사는 여성친화도시 서구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활기찬 노후를 위한 건강채움 길잡이에 참여하세요”

동구, 이달 25일~9월 11일... 만성질환 등 예방 맞춤형 교육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채움 길잡이’ 프로그램을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만성질환 및 치매 예방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꾸려진다.

운영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이며, 동구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오후 2~3

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건강체조 및 근력운동 ▲치매 예방 교육 및 기억력 검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 ▲전통 놀이를 통한 뇌인지 강화 ▲우울 예방 교육 ▲주름 완화 크림 만들기 등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활기찬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는 의미로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